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 다음달 28일 열린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가 3/28~31일 4일간 '시공초월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한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 3월 31일까지 4일간 '시공초월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 주제 확정

가 13일 영암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과 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축제도시 영암의 빛나는 시작을 열다'를 축제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왕인박사 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일대에서 행사를 열기로 하고, 왕인축제 기본계획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축제 대표 테마 퍼레이드인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야간으로 옮기고 봉선대-상대포역사공원로 관광객 동선을 확장하자는 제안, 조선통신사철단 퍼레이드 공연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영암푸드코트'를 구성하자는 건의 등이 제기됐

다. 우송희 영암군수는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다. 인물 축제에서 콘텐츠 축제로 전환을 성공해서 영암을 새로운 축제의 도시로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이 남도의 정취를 만끽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축제추진위원장인 김한남 영암문화원장이, 부위원장인 임희성 영암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박찬구 군서면문화체육위원장이 선출돼 집행부를 구성했고, 15명 위원도 위촉을 받았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2024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20일부터 신청...중위소득 50% 이하

영광군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2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협 하나마트, CU, GS25, 로컬푸드직매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90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2인 가구 5만 7천 원, 3인 가구 6만 9천 원 등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 20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연 기자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항목 32개로 확대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7개 항목 추가... "500만원 보장"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을 추가했다.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전거사 사고 사망·후유장애,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총 32개 보장항목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한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농부산물 이젠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신안군, 신청만 하면 직접 파쇄해 주는 서비스 실시

신안군은 지난 15일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현장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위한 파쇄 지원 서비스 홍보와 더불어 고령 농가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도 함께 홍보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연결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

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농업인이라면 언제라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산불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 감소 및 부산물 퇴비화 등 1석 4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현재까지 4톤가량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의 날'을 지정해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전남도·주택건설협회 협력 '행복동지사업' 추진

목포시가 올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동지 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동지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 전라남도와 목포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민관이 참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주택의 상황에 따라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

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택의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 시설과 난방, 창호, 부엌, 화장실 등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현재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있으며, 대상자 모집이 종료되면 5월부터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동지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효사랑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인기

무안군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효사랑 맞춤형 순회 의료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효사랑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50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소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치매안심팀, 공중보건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팀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건강상담, 구강검진, 신체활동 프로그램,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등 유소견자를 발견한 경우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순회 의료서비스가 많은 지역주민께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